



## (주)신성바이오 본회 정회원으로 가입

### 2006년도 이사회 서면결의

전북지역 도계업체인 (주)신성바이오(대표이사 신동근)가 가금처리 회원사로의 가입을 신청함에 따라 본회는 지난 10월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회원가입을 승인했다.

이번에 (주)신성바이오가 본회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향후 본회를 주축으로 19개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원사와 아울러 8개 가금처리회원사가 화합·단결하여 현재 계육업계에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며, 나아가 국내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회원가입내역〉

회원구분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	업종
정회원 (가금처리주체)	(주)신성바이오	신동근	전북 익산시 부송동 190-9	(063) 834-9920	제조·도매, 도계·축산물

## 본회 및 16개 회원사

### 공정위 심의 의결 건에 대해 제소

본회 및 16개 회원사는 지난 10월 2일 공정위의 심의·의결 건(한국계육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닭고기 도계육 생산 1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삼계용 닭고기 생산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닭고기 육가공품 생산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4개 사건)에 대하여 농·수·축산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공산품의 시장경제논리로 공정위

규정을 적용한 부당성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제소키로 했다.

## 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본회를 포함 가금관련 7개 단체



가금관련 7개 단체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대보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본회를 비롯, 농협중앙회, 양계협회, 치킨외식산업협회, 오리협회, 계란유통협회, 토종닭협회 등 가금관련 7개 단체들은 지난 10월 19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시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비대위를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지난해와 같이 국내에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방송 등이 해외에서 발생한 시를 과대 보도함으로써 가금육의 소비가 감소해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차단방역 등 질병 예방 등에 관한 문제는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소비홍보에 가장 큰 효과를 거뒀던 사관련 생산물 책임배상보험의 재가입 문제 등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는 본회 한형석 회장이 추대됐으며, 간사는 치킨외식산업협회에서, 추진위원은 그 외 단체에서 담당키로 했다.

## 육계자조금 실무위원회 개최

### 관리위원 추천

본회를 비롯 농협, 양계협회 등 육계자조금 관련단체들은 지난 10월 20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자조금 실무협의회를 갖고 대의원회 위촉 대상 관리위원수를 10명(각도별 1명씩 8명, 재래닭 및 종계 각 1명)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관리위원 및 감사 추천 명단을 단일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관리위원수와 추천명단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21일 오후 2시 농협 안성연수원에서 관리위원 위촉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육계자조금 관리위원회는 당연직 6명을 포함, 모두 16명의 관리위원과 2명의 감사로 이뤄지게 된다.

## 닭고기 포장유통 시행 관련

### 도계장 및 닭고기 포장시설 해외 선진지 견학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8만수 이상의 닭을 취급하는 도계장에서 닭

고기 포장유통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한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본회 회원사들은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시행과 관련 해외 선진국의 도계장 및 닭고기 포장시설을 견학키로 했다.

이번 견학은 오는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5박7일 동안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선진국의 마인, 시스템아티, 린코, 스탁社 등을 방문하여 닭고기 포장유통 설비를 둘러보게 된다.

## 축산물제조업(도축장) 외국인 근로자 채용업종으로 포함토록

### 노동부에 요청

농림부가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계열화 사업은 축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수집, 도축, 가공, 유통시키는 사업으로 많은 인력 수요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축업(도계업)은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근로자 채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관계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닭고기 회사인 타이슨社의 경우 매출 264억달러(26.4조원), 종업원 11만4천명에 이르고 있는 데도 영주권까지 보장하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제한 없이 허용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본회는 이러한 도축(도계)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의거, 영업의 허가를 받은 도축(도계)업도 특례고용허가 업종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지난 10월 11일 노동부에 요청했다.

## 2007년도 다이어리 제작

### 11월중 배포 예정

본회에서는 회원사를 비롯 육계 및 계육관련 업계, 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도 다이어리를 제작, 11월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다이어리는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스프링형으로 제작됐으며, 회원사 및 육계관련 업체 주소록과 관련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 생산책임자회의 개최


### 사육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

지난 9월 29일 본회 회의실에서 가진 '생산책임자



회의'에서는 계열농가 연료비 현실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계열농가에 지급되는 연료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 회원사별로 현재 지급기준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실정에 맞게 적용키로 했다.

또한 회원사 및 사육농가의 세부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에 대해 차기 회의시 심층 토론키로 했다. 

## 인사 소식

### ■ 농림부

(2006년 9월 28일자)

〈국장급 진보〉

- 축산국장 이상길

(2006년 10월 12일자)

〈파견〉 2006. 10. 12 ~ 2007. 3. 11

#### ◎ 식품안전기획단

- 기술서기관 이상진(검역원 역학조사과장)
- 행정사무관 이동홍(축산물위생과)
- 농업사무관 김 철(통상협력과)
- 수의사무관 이성도(검역원 동물보호과)

(2006년 11월 1일자)

- 농림부(호주 시드니대 파견) 축산주사 이기풍
- 축산국 축산주사보 김영민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년 10월 23일자)

- 축산팀장 허 덕

(2006년 10월 1일자)  
(승진)

- 연구위원 이성복
- 부연구위원 김용렬
- 부연구위원 김태훈
- 부연구위원 이대섭
- 부연구위원 정은미
- 초청전문연구원 박경철

### ■ 네오바이오(주)

(2006년 10월 20일자)

〈채용〉

- BI 사업본부장 이완영 이사
- ML 사업본부장 박준경 본부장